



## 말조심 합시다

오재호/한국부문화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지** 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 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여자가 <혼인신고금지 가치분신청>을 해왔습니다. 간단히 사건을 설명하자면 3년 동안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난데없이 함께 살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할 김새가 보였습니다. 게다가 더는 그 남자와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무지무지하게 욕을 잘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당연히 여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자녀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욕을 해본 일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가 자그마치 28%가 나왔습니다. 현대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부모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욕하는 모습을 경험한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83%나 되는 아이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느낌은 전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자녀에게 혹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욕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부모로부터 그런 욕을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해도 “XX할 놈” 혹은 “XX할 년”이란 욕은 한두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넌 우리 집 굴치 덩어리야” “너만 없으면 두 다리 쪽 뻗고 잘 텐데”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넌 괜히 낳았다.” “너만 보면 정 떨어진다.”

“너 때문에 내가 못살아” “나가 뉘져라” 등등 이런 욕설을 해놓고도 별로 무감각합니다.

이 같은 욕설은 필연적으로 어떤 “역할”을 받게 되고 그 역할은 자녀의 성격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역할 속에는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때의 “기분 나쁜 느낌”은 보복을 낳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욕을 먹은 배우자는 상대에게 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설은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 840조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욕을 하게 되느냐 그것입니다.

첫째, 혼인 전에 자식을 낳았을 때 둘째, 사랑하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임신을 했을 때 셋째, 아이 때문에 자기 꿈이 무너졌을 때 넷째, 자녀 때문에 주위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현대 예외적으로 남자들의 경우에는 질투심과 증오심이 깊이 작용할 경우도 많습니다.

제발 욕을 하지 마시다. 욕먹은 자녀들은 “죽고 싶었다.” “가출하고 싶었다”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죽이고 싶었다”가 전체 응답의 89%를 차지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으로부터 혹은 아내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욕을 하십시오.

이래서 세상은 살기 어려운 법입니다. PPFK

